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8월 1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검찰의 중형이 구형됐다. 여타 이 사건 관련 14명의 피의자에게도 역시 무거운 형이 구형됐다. 군사반란으로 민주화의 염원을 짓밟은 소수 정치군인의 배신행위에 대한 국민의 추상 같은 정치의 결의를 그대로 반영한 구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졌다. 그러나 부처님 인과법을 믿는 우리로서는 표면적으로는 5개월여 걸린 재판이지만, 16년여 전의 업으로 인한 그 인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된다. 업과 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5·6공 재판과 업

남을 때리면 얻어맞고, 원한 살 짓을 하면 원한을 사게 되고, 남을 욕하면 욕을 먹고, 성을 내면 남도 내게 성을 내리라.

〈법구경〉

온갖 중생은 제 번뇌로 지어진 업에 의해, 그 몸과 사는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 하나하나 제 몸과 사는 세계와 수용해 지니는 것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업을 젖혀놓고 다른 무엇이 사는 세계와 수용해 지니는 것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업을 젖혀놓고 다른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화엄경〉

온갖 중생이 받는 고락의 과보 모두가 다 현세의 업 때문인 것은 아니며, 그 원인이 과거세에도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에 있어서 인(因)을 짓지 않는다면, 미래에 받아야할 과(果)도 없을 것이다.

〈열반경〉

선업이 있으면, 그 자체에 갖추어진 힘 때문에 좋은 업보를 받게 된다. 국왕의 권들어 주는 힘이라 할지라도 업력에는 못미친다.

〈대장엄경론〉

범부들은 세간법에 얽매여 이것을 실재하는 듯 생각해서, 눈에 띄는 대경(對境)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 불선(不善)을 저지르게 되는바, 이 불선탓으로 고취(苦趣)에 떨어지는 것이다.

〈화엄경〉

온갖 중생은 다 번뇌를 따라 과보를 얻는다. 번뇌란 소위 악(惡)을 이름인데, 번뇌의 더러움을 따라 다시 생기는 번뇌 또한 악인 점에서는 같다. 이렇게 번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인으로서의 번뇌요 하나는 과로서의 번뇌인바, 인이 악한 까닭에 과가 악하고, 과가 악한 까닭에 인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열반경〉

선악의 과보는 함께 서로 좇아와서 소리가 산울림을 일으키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아 놓히 면할 사람이 없으며, 쇠사슬과 같이 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솔히 악업을 지어 큰 괴로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니건자경〉

광복 51주년 특집 6·7면
산문밖의 선 올림픽 2관왕 김경욱 5면
사찰환경권 보장 법으로 15면
각종단 한일교류 활발 14면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33-1880(3)

석굴암·팔만대장경등 세계문화유산

정부 인터넷홍보 '무관심'

유네스코 정기 모니터링보고 준비 전무

해인사팔만대장경과 관고, 석굴암, 종묘등 작년12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활동과 관리업무가 매우 소홀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등록 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co.caltech.edu/~salmon/world.heritage.html)에는 한국의 유산 3건의 명칭만 올라 있을뿐 사진이나 구체적인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 유산의 소유국이 보내주는 사진과 안내문을 그대로 등재해 주는 이 홈페이지는 지난해까지 지정된 세계유산 총 4백 69건을 국가 및 지정연도별로 정리해 놓고 사진과 안내문등 추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유산을 비롯 지난해 지정된 27건의 유산만 하더라도 15건의 유산에 대한 추가정보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다.

한국의 세계유산에 대한 추가정보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국내의 담당기관인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추가 정보제공의 기능이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혀 무관심의 정도를 드러냈다. 이같은 실정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마찬가지여서 관계자들은 "그런 추가정보서비스 기능이 있는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5월 세계유산 전산화기금 10만불을 유네스코에 기부했던 사실에 비추어 대단히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한 스님은 "한국의 유물이 세계유산이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으나 인터넷상의 홍보 미약은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등록유산의 과학적 관리와 이상유무 파악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모니터링 보고 시한이 9월 1일 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업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유네스코위원회는 지난 2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모니터링 보고를 요청 받았으나 아직 문화재관리국과 구체적인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보고는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는 등록유산의 보전상태에 대한 문화재 전문가의 과학적인 조사결과등을 내용으로 하기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종욱 기자〉

데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월서스님

◇윤용숙씨

동참해주신 분

△월서 조계종초심호계원장: (3구좌) △지완 성심사스님: 천안여고(1구좌) △승현 대원사스님: 진도여고(1구좌) △윤용숙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법동종합복지관(20구좌) △임조형 본사 제주지사장: 제주상고(2구좌) △박혜란: 강릉여고(1구좌) △임두식: 울산 중앙고(1구좌) △박용숙: 경남여중·고(2구좌)

〈8월8일 현재 총 410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

청소년을 자연합 파라미타가 지난 6~9일까지 열린 제1회 연합캠프에 참여한 전국의 3천여 청소년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맑은 세상, 청소년세상, 부처님세상'이 되기를 서원하며 힘찬 첫 출발을 했다. 〈관련기사 14면〉

올림픽 불자선수 환영
16일 조계사서 법회

제26회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종합10위에 오르는데 공헌을 한 불자선수들을 격려하는 애틀란타 불자선수 초청법회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오는 16일 오후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14면〉

이번 행사는 스포츠정신을 불심으로 이룩한 불자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축하 법회와 다과회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원 50명대학 가능
교육부, 수도권 설립 허용

교육부는 지난 6일 대학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도 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대학과 입학정원 50명이하의 초미니대학 설립을 가능토록 한 시행규칙을 마련 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학설립을 철저히 규제해 온 수도권지역에 대학원 대학의 설립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권역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서울인접 시·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안에서는 입학정원 50명이하의 소규모 대학설립을 가능토록 했다.

군법사 없는곳 재가포교사 파견

조계종 포교원 신도교육등 하반기사업 발표

포교사단 조직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조계종포교원의 하반기 주요종책으로 진행된다.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3일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포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포교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이 배출한 포교사는 3천2백여명에 이르나 활동이 거의 없거나 교구본사와의 연계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 포교사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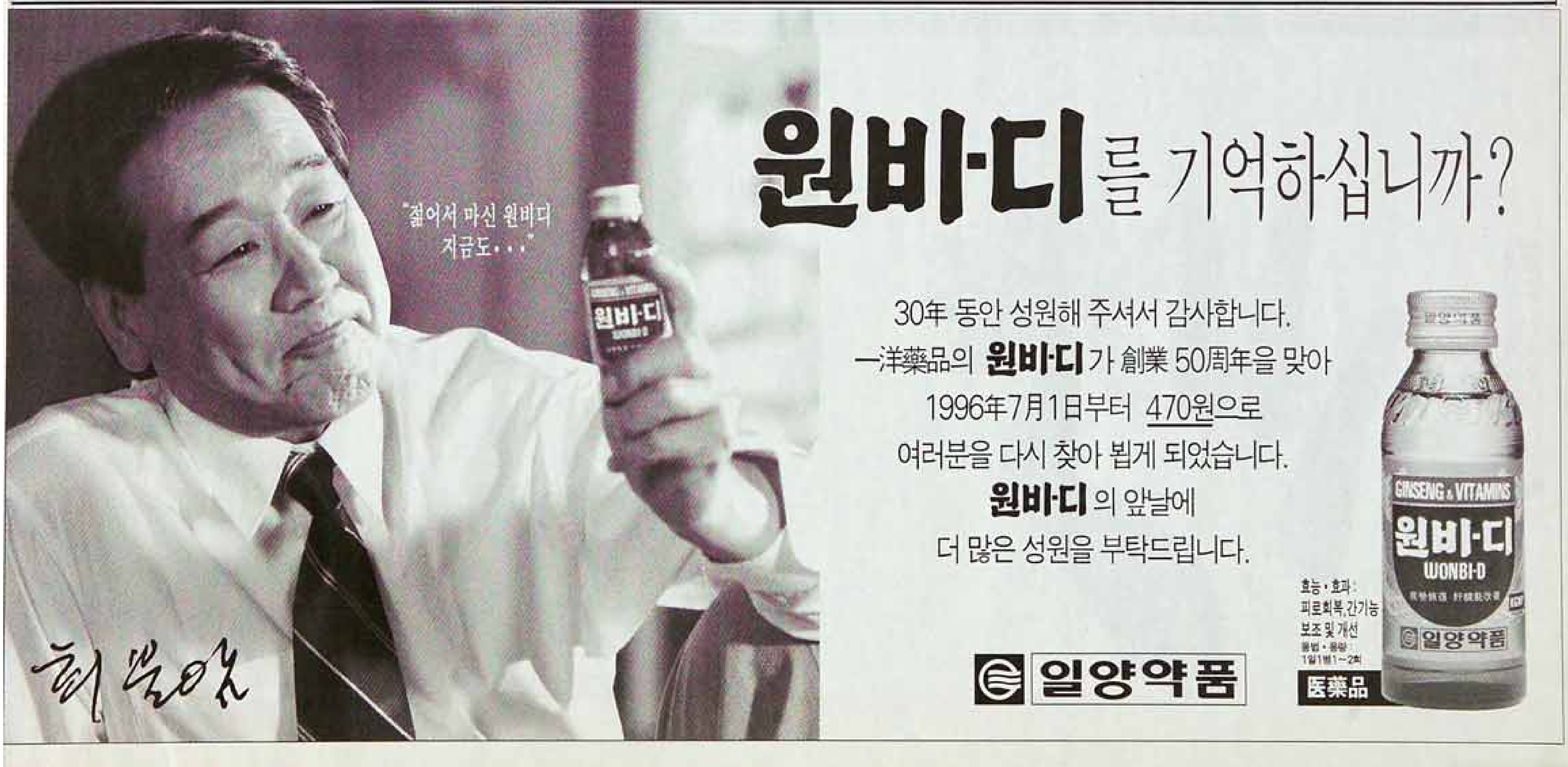
포교원은 포교사들을 지역단위로 포교사단으로 재편성하고 교구본사 포교국과 연계해 지역포교 활동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교구본사에 상임포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종법으로 정하는 한편 활동비 지급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직능별 포교사 모임을 결성하여 분야별 포교활동 추진, 군법사 부재지역에 재가포교사 파견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이밖에도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포교관련 종법 및 규정의 제·개정 △신도교육 체계확립과 불교교양대학 관리강화 △관람료사찰 및 국립공원 무료입장 △각종 포교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8·15 남북공동 법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회장 도안)와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은 오는 15일 LA관음사와 북한에서 남북불교도 우호진작을 위한 '남북불교 8·15법회'를 동시에 봉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11일 조불련이 평불협 미주본부를 통해 '조국통일을 위한 불교도선언문' 채택 및 남북불교 8·15 남북동시 개최 제의에 따라 남북공동법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